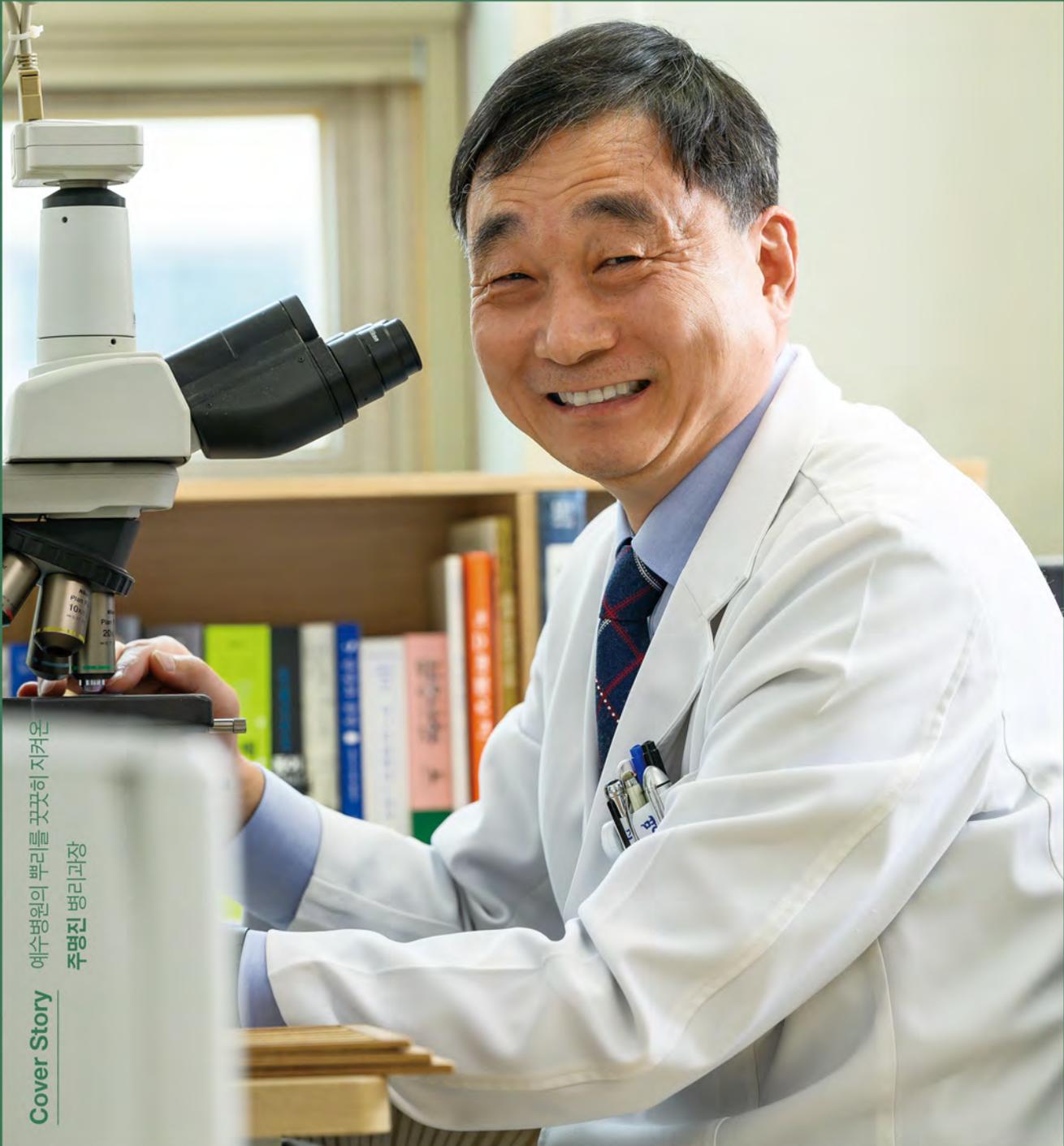


ALLOTMENT



Cover Story
예수병원의 뿌리를 곳곳히 지켜온
주명진 병리과장

Editor's Pen

정말이지 이젠 코로나19가 제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인들의 오미كرون 감염 소식을 종종 듣고 걱정하다 보니
이제는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는 그들의 생활이 정지된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일부 지인은 더 나아가기 위해 맞은 휴식의 시간이라 표현하더군요.
갑작스러운 감염과 격리로 멈춘 것 같은 시간에
제대로 쉬고 준비하여 정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겪어내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지녀봅시다.

ALLOTMENT

Presbyterian Medical Center Magazine 얼랏먼트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김철승

편집인 홍보실장 송승현

기획 학예연구사 남지현 | 홍보실 국하은

사진 작가 김내성 | 홍보실 김찬경

디자인 오케이민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예수병원을 팔로우 하셔서
예수병원의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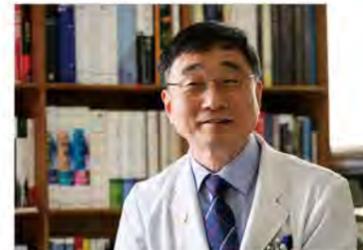
SPECIAL THEME

04
Photo Essay

예수병원
위대한 정진

10
Interview
주명진 병리과장

14
PMC Talk
하루를 채우는 나만의 습관



APPROACH

16
Activity
태안 안면도 운여해변 차박 여행
고스란히 지새워도 좋을
별 헤는 밤

20
칭찬 Challenge

22
History
윌리엄 포사이드
고난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은
굳은 의지

24
PMC Member
선별진로소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맞서다

28
즐거로운 취미생활
당신이 뜨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ACCOMPANY

30
Health Story
두름
이른 봄을 깨우듯
무른 잠을 깨우다

32
Relation
같은 감동,
같은 추억을 더하다

34
PMC Rookie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되는
신입 사원

36
PMC NEWS

40
Donation

42
진료 일정 안내





정진精進: 힘써 나아감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온 예수병원의 가치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노력도, 대가도 없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환자를 섬깁니다

다시 강대하고 위대한 예수병원 Be Strong & Great Again!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마음
예수병원이 지키며 나아가는 가치.



환자 제일주의의 핵심입니다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정진’의 의미 그대로 ‘오랜 시간 힘써 나아가기’ 위해선, 올곧은 신념이라는 동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매일 같은 길 위에 서는 뜻심과,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동안 두터워진 자기 확신 없이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삼십 년 세월 한결같은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주명진 과장이 미더운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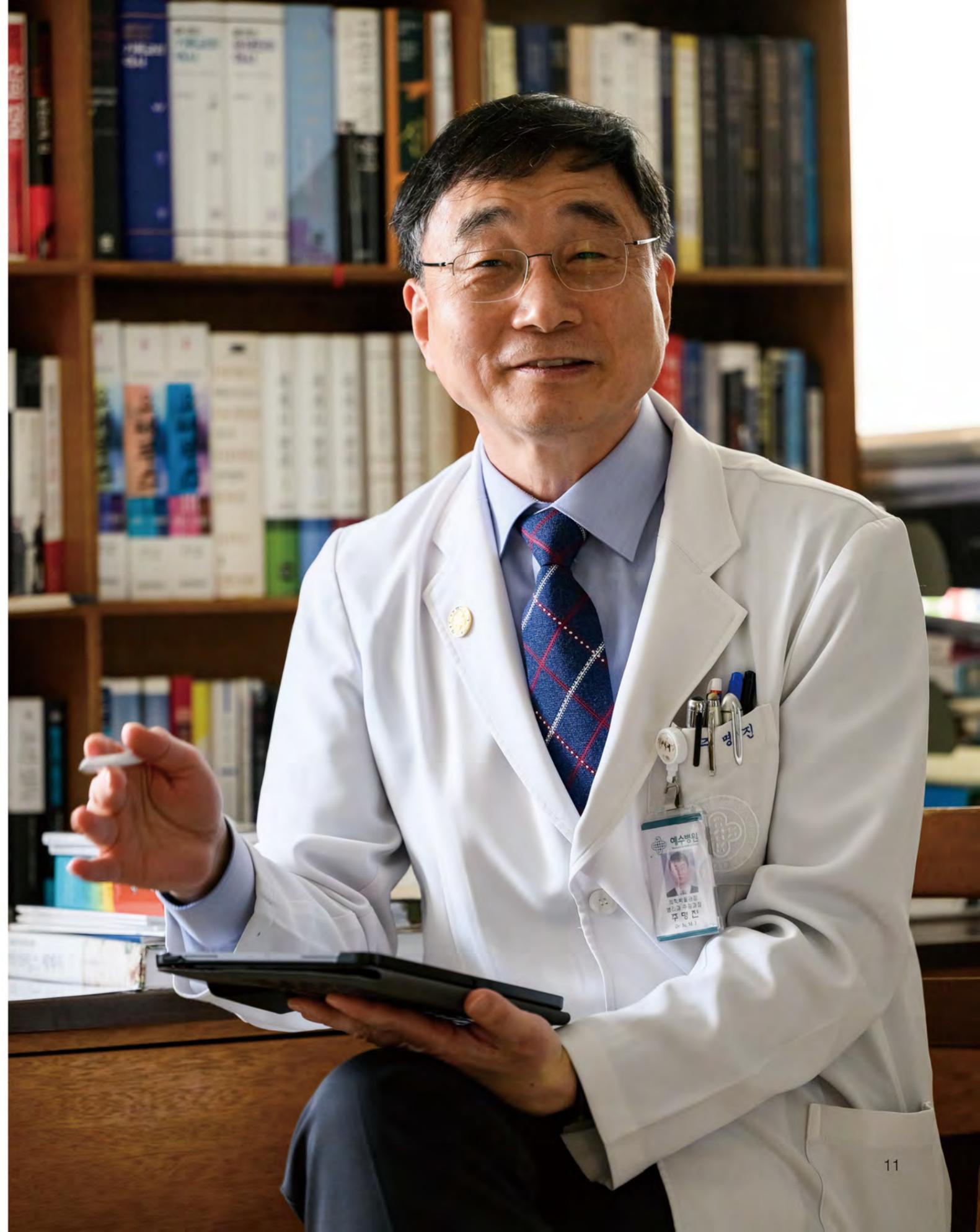
의사이기 전에 인간됨의 자세로, 묵묵히 걸어온 외길의 신념

주명진 병리과장

예수병원의 뿌리를 쫓듯이 지켜오다

병리과는 사람의 신체를 마주하는 과는 아니지만,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을 만나는 과이다. 생명의 근원인 세포의 조직을 들여다 보며 병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탐색하기 위해선, 현미경처럼 예리한 관찰력과 단면이 아닌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병리과 의료진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면밀하게 진단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임상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치료와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상에 힘을 실어주는 병리는 곧 병원의 뿌리와 같다.

깊이 있고 밀도 높은 시선으로 예수병원의 병리과는 물론이고 병원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온 주명진 과장.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그가 쫓듯이 지켜온 신념과 철학은 무엇일까? 그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언행이 일치하는 의료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의사와 환자가 이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된 의료인의 자세를 몸소 실천해 온 세월이 무려 삼십여 년. 세상의 요구보다는 자기 안의 소신을 따르며, 묵묵히 행해온 올곧은 신념을 일컬어 예수병원의 근본이자 뿌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66

새로 들어온 인턴과 실습생을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기계나 물건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의사와 환자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 제가 의사로서 지켜온 원칙입니다.

99



주명진 병리과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9년 예수 병원에 입사해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30년 넘게 근무 중인 원로이다. 성경과 인문학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예수병원에서의 삼십여 년, 의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정진해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의료 선교사의 꿈을 안고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졸업 후엔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님들을 따라 예수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병리과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전공을 고민하던 중, 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추천으로 해부병리과 레지던트를 시작한 해가 1994년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병원의 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 예수병원을 100년 이상 운영해 오신 선교사님들의 뜻을 본받아 선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병원이 예수병원다운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선 선교 사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병리가 임상을 뒷받침하듯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것 못지않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선교임을 깨달은 뒤, 선교 프로그램과 규정을 만드는 일로 새로운 선교의 길을 트며 병원의 번영을 위해 힘썼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턴과 실습생을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기계나 물건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의사와 환자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 제가 의사로서 지켜온 원칙입니다.

우리 병원 의학박물관의 관장으로 부임하셨는데요, 박물관 운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선교회를 이끌면서 병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박물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유물 전시와 관람을 넘어, 방문객이 체험하는 참여형 박물관이 제가 그리는 밑그림입니다. 더불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풍경을 먼저 선보이려 합니다. 당시 한국은 밥을 세 끼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눈에는 전쟁을 겪으며 많은 사람이 죽고 산업 시설이 파괴되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황폐한 나라로 보였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과 의료의 공이 컸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와 학교, 병원이라는 세 축을 세웠기에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먼 이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 땅으로 떠나와 풍토병과 싸우면서 자기 아이들을 묻은 이들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되짚는 동시에 그들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삶을 살펴보고 앞날을 계획하는 박물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의료인과 시민들께 희망이 담긴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훗날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새로운 병이 유행할 때마다 두려움에 방황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백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환경 백신입니다. 자원을 남용해 황폐해진 자연이 자멸자득임을 깨닫고 반성하며, 환경 보존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면역인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연 면역 시스템을 향진하기 위해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삶이 지칠 때마다 소소한 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고, 긍정적인 변화로 내면을 강화하면, 유행병이 발발해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를 채우는 나만의 습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오랜 시간 반복해 온 작은 의식도 좋고, 출근이나 업무 시작 전 루틴,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도 좋아요. 하루를 채우는 나만의 습관이 쌓여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듯이 지금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위해 오늘부터 하루를 채워나가기로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아침에 항상 야채 주스와 빵을 먹고 출근합니다. 매번 음악을 들으며 출퇴근하는 것도 하루를 채우는 나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상의학과 박예은

많은 사람이 명상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명상은 '생각을 비우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주변에서 흔히 느꼈던 걸 하나하나 새롭게 느껴보라.'입니다. 때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도 명상을 통해 돌아보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종종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 국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켜고 하루를 시작해요. 라디오가 이불에서 나오기 싫은 힘든 아침 시간을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거든요. 바빠서 챙겨 듣지 못했던 주요 뉴스나 날씨 같은 유익한 정보도 알려주고요. 가끔은 내가 좋아했지만, 잊고 있던 음악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런 날은 더욱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모두 좋은 아침 보내길 바랄게요.

간호국 고이라

메모의 목적과 형태는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지만, 저는 '잊기 위해'서도 해요. 'Fleeting memo'라 칭할 수 있는데, 일단 메모해 두면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또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벼워진 마음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파생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뭐든 좋아요. 지금 당장 메모합시다!

재활의학과 이걸

매일 똑같이 하는 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다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병원 종사자는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종사자와 환자 모두 건강관리 잘해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여진호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운동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편하게 쉬는 것에 적응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운동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 하던 찰나에 과장님께서 '우리과는 계단이라고 걸자.'라고 하셔서 하루 최소 3회 정도는 7층 높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하루의 활력을 찾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과 이유동

하루 마무리를 스트레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잠들기 어렵고 자고 일어나서도 항상 피로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눕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일 숙면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결국 다음 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도 내일을 위해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려 합니다.

의무기록과 오혜민

보통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무거운 걸 들면 힘들다고만 생각합니다. 운동을 잘하진 않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힘들고 무겁다는 생각이 하루의 근심을 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을 끝낸 후에는 '해냈구나. 앞으로 다른 힘든 일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해 정신적 활력과 육체적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어 퇴근 후 루틴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 우남규

고스란히 지새워도 좋을 별 헤는 밤

태안 안면도 운여해변 차박 여행



해가 지면 별이 뜨는 자연의 순리가
어두운 하늘을 불 밝히고 너른 바다를 비춘다.
별이 춤춘 밤하늘과 물비늘 반짝이는 바다를
객의 눈이 한가로이 유영하는 밤,
마음의 빈칸으로 별 무더기가 내려앉는다.
쉬이 누릴 수 없는 이 호사는 차박이기에 가능하다.



낮선 여행지를 마주하고 차 안에 여행의 설렘과 감성을 쌓아 나만의 공간을 짓는 차박

머리에 별밤 이고 자고 싶거든

차박 2일

일상에 지치고 사람에 치여 어디든 훌훌 떠나고 싶은 날이 있다. 나 홀로 오롯이 혹은 소중한 사람과 단둘이, 호젓한 여행길에 오르고 싶은 날, 이런 날엔 '차박'보다 마침맞은 여행이 없다. 여행지에서의 숙박이 주저되는 요즘, 편안하고 안전한 차박이라면 안심이다. 탁 트인 해안도로를 윈 없이 달리다가 눈이 끌리는 곳에 차를 세우고, 원하는 뷰를 눈앞에 마주한 채로 보내는 해변에서의 차박 2일 어떻게? 행선지는 어디라도 좋지 아니할 리 없지만, 별빛 수놓인 밤하늘을 지붕처럼 이고, 고른 파도 소리를 이불처럼 덮고 자는 하룻밤이라면, 제아무리 호화로운 호캉스도 남부럽지 않겠다.

발 닿는 대로 달려온 걸음을 멈추고 차를 세운 곳은 태안 안면도의 숨은 비경, 운여해변이다. 오늘의 집은 바로 여기.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은근한 조명등을 달면, 1박 2일 동안 여유로이 머물다 가기에 손색없는 아늑한 방 한 칸이 그세 완성된다. 위아래로 은막처럼 펼쳐진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두고 먹는 늦은 저녁, 특별한 음식이 아니어도 좋다. 신선한 샐러드와 샌드위치, 그리고 향긋한 커피까지, 간단한 요깃거리도 훌륭한 식사가 된다. 이곳에선 잠시 음악을 끄고 자장가 같은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오래간만에 즐기는 여유가 그지없이 반갑다.

수채화 같은 낙조와 술바람 부는 숲길



충남 태안군 황포항에서 남쪽으로 1km가량 내려간 지점, 시골길을 따라가다 바람에 짝조름한 바다 내음이 실려올 즈음 운여해변이 슬쩍 얼굴을 드러낸다. 운여해변은 입자가 고운 백사장과 해변 따라 이어진 해송을 끼고 있어 서해에서도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운여'는 '넓은 앞바다에 높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만들어내는 포말이 장대해 마치 구름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발 앞까지 밀려왔다 수평선 너머로 달아나는 서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본다. 어찌면 파도는 바다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아닐까. 무수한 세월 고르게 이어온 숨이 오늘도 쉽 없이 넘실댄다. 운여해변의 비밀스러운 풍경은 해변 남쪽에 소나무를 심어 만든 방파제로부터 비롯된다. 밀물 때 방파제 안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차 마치 섬처럼 보여 '술섬'이라 불리는 곳, 서해의 두 얼굴을 온전히 만나고 싶거든 이곳 술섬 건너편을 권한다. 썰물 때는 드넓은 갯벌이지만, 밀물 때엔 밀려든 바닷물의 해수면이 거울이 되어 숲숨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또한, 물때를 잘 맞추어 밀물 때와 일물 시각이 겹치면 환상적인 낙조를 볼 수 있다. 나란히 늘어선 숲숨 사이사이로 고개를 들이민 해가 해수면 위에 길게 몸을 누이는 저물녘이면, 수채화처럼 물빛으로 번지는 불그름한 석양에 보는 이의 눈가마저 붉어진다. 바닷가의 밤은 도시보다 일찍 찾아온다. 모두 잠든 밤에도 종종 눈을 뜬 별들이 오늘 밤의 동행이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간직해 왔던, 모래알 같은 속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아도 좋다. 세상만사 고민 걱정 한시름 술바람에 실어 보내면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테니.

Landscape 1 — 운여해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셋별해수욕장과 장삼포해수욕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해안사구와 독살 등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났으며, 특히 일몰이 장관이라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 캠핑장이 구비되어 있어 나들이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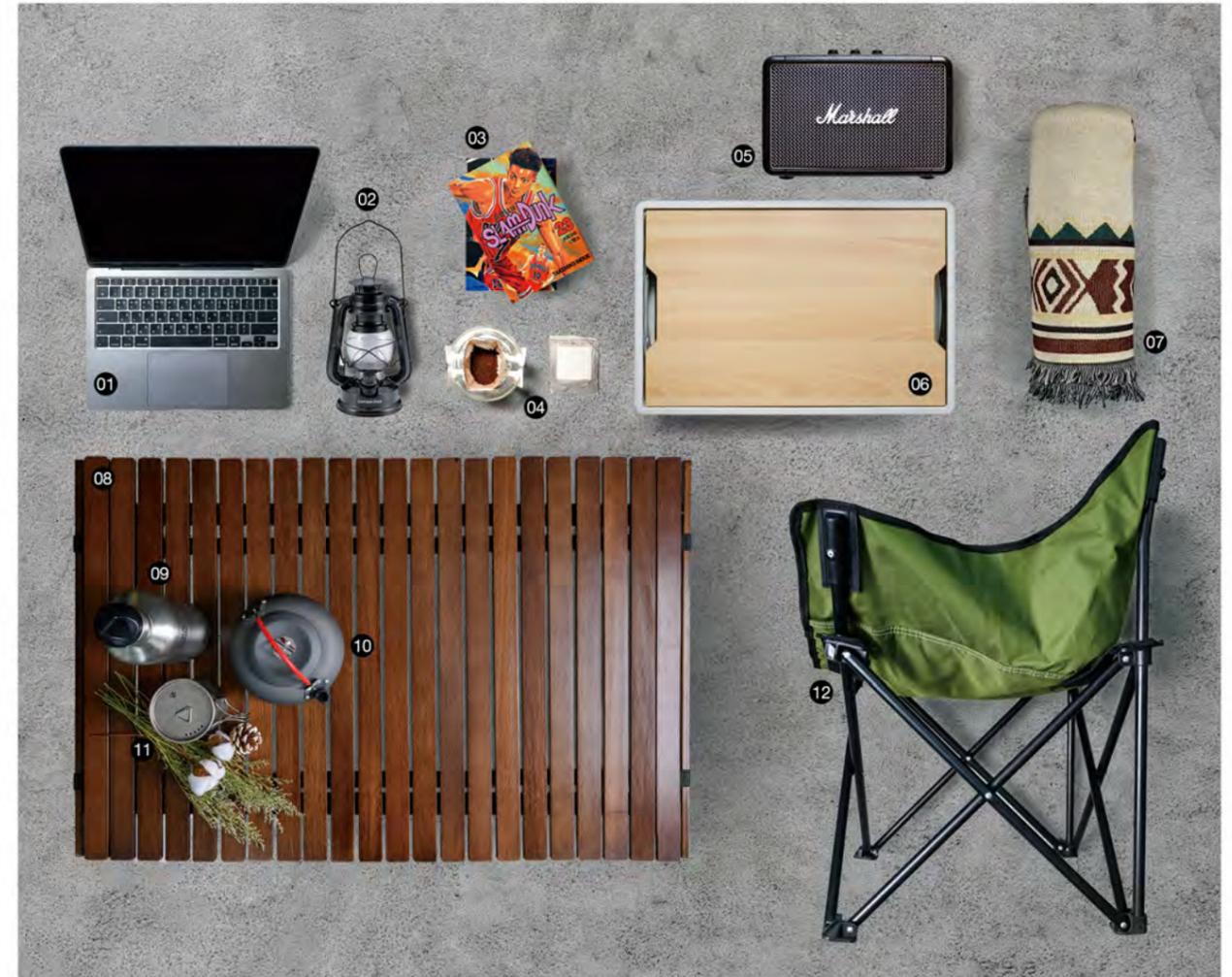
주소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삼포로 535-57

Landscape 2 — 드라이브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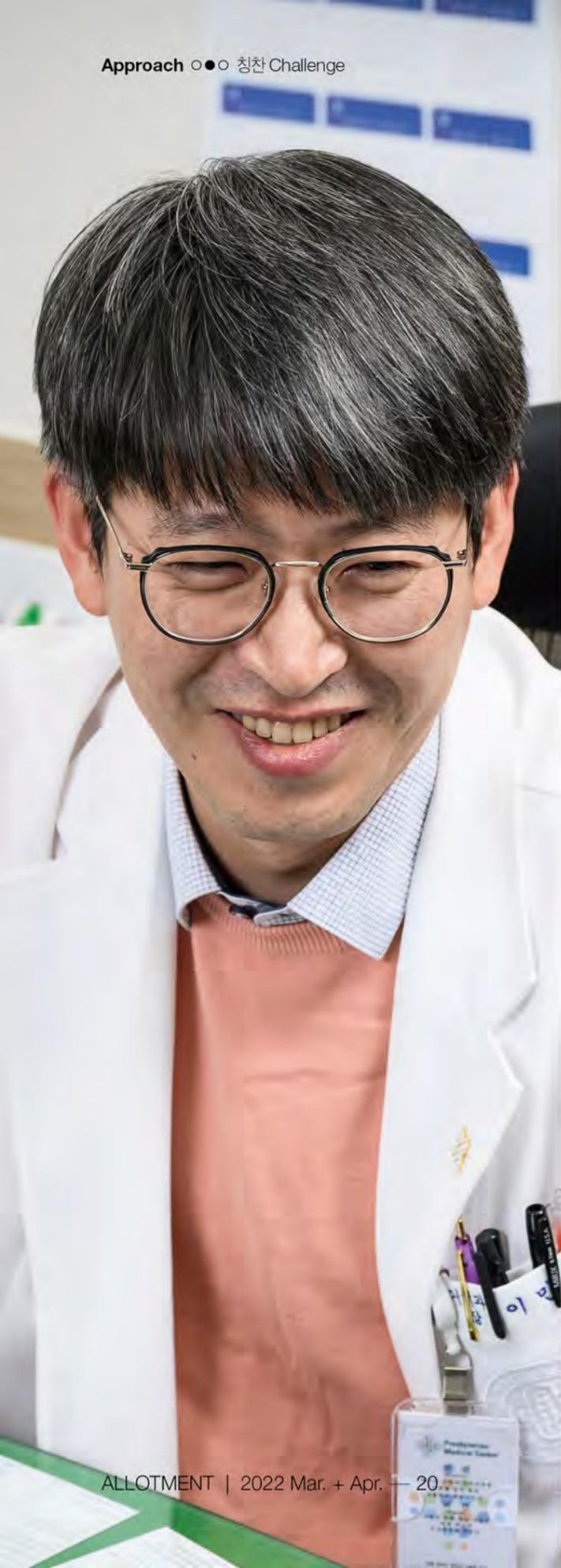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 사이에 놓인 보령해저터널은, 길이가 무려 6,927m에 달해 전 세계 해저터널 중 다섯 번째로 길다. 10여 분 가량 달려 보령해저터널을 빠져나와 원산도를 가로지르면 원산안면대교에 이른다. 양옆에 바다를 끼고 쪽 뺨은 다리를 건너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까지 곧장 갈 수 있다. 바다 속과 바다 위를 넘나드는 이색 드라이브 코스이다.

감성 차박 Check List

To Make Your Sensibility
메마른 감성을 적시는 차박 아이템



01 맥북 너만의 작은 영화관을 갖고 싶다면 감성 한 입 베어 문 맥북만한 게 없다. 02 캠핑 랜턴 캠핑장의 저녁은 도심처럼 밝지 않다. 생존과 감성 앞에서 '난 둘다'를 외치는 캠퍼라면 랜턴은 필수템. 03 만화책 한쪽에 쌓아 놓고 엎드려 읽어야 제맛. 숨 바쁜 영상에 지쳤다면, 펼쳐보자. 04 드립백 커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가 카누라면, 드립백은 조금 작은 카페 정도 되겠지. 05 마샬 스피커 'Marshall' 문구 하나에 감성 차박에 정점을 찍는다. 차박에 낭만을 더해주는 감성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는 스피커. 06 폴딩 박스 일명 '밀크 박스'로 불리며 수납과 테이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아이템. 스티커를 붙여 꾸미는 '박스' (박스 꾸미기)는 캠핑의 또 다른 재미. 07 담요 캠핑장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작은 방으로 만들어 줄 노르딕 패턴의 담요. 08 캠핑 롤테이블 우드 패턴 상판으로 어디에서든 손쉽게 자연을 펼쳐다. 09 보온병 자연에서도 문명의 이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챙겨가자. 10 주전자 비록 내 몸은 무겁지만, 가격과 무게는 가벼운 것으로 원한다면 알록스 캠핑용 주전자. 11 컵 작은 컵 하나에도 감성은 놓칠 수 없다. 감성 가득한 컵에 내려 마시는 커피는 왠지 더 맛있다. 12 캠핑 의자 한밤의 사색도 야식으로 불어날 내 몸도 모두 지탱해 줄 거야.



61병동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민희** 과장

칭찬 Challenge 이달의 주인공은 국민안심병원에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민희 과장님입니다. 이민희 선생님께서는 61병동의 박선자 수간호사님을 칭찬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민희 선생님께서 건넨 따스한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대화를 환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무과 최점숙 선생님께서 평소 제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지난 호 칭찬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해 주신 것 같아요. '환자분께 항상 친절하게 대해드려야지'라고 의식하며 행동하기보다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진료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려고 해요. 명절 인사나 근황 같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대화를 환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최점숙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61병동 박선자 수간호사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 간호사이자 현재는 61병동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박선자 선생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칭찬해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그간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제가 61병동을 회진할 때마다 박선자 선생님께서 항상 밝게 웃으며 맞아주셔서 에너지를 얻었고, 덕분에 활기차게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분들을 진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선자 선생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박선자 선생님은 책상에만 앉아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환자 곁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수간호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직책을 맡아 근무하시면서 안 그래도 피곤하실 텐데 환자와 병원 직원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어요.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을 웃으며 맞아주시는 박선자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칭찬 챌린지를 통해 전하고 싶어요.

박선자 수간호사님께 전하는 메시지

61병동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 박선자 수간호사님, 회진 때 인사만 드리다가 칭찬 챌린지를 통해 이야기를 건네려니 어색하네요. 아침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스테이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문서주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환자 진료에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수간호사로 병동을 담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안심병동으로 61병동이 지정되어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대해주시면서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의사도 치료를 하지만 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24시간 환자 곁에서 머물며 보살피 주는 간호사에게 달렸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간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에요. 박선자 수간호사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실함, 포근한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오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6 박선자 수간호사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실함, 포근한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오래 뵙고 싶습니다.

고난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은

성자라 불릴 만큼 온유한 심성을 지녔으나, 환자를 치료함에는 누구보다 담대한 모습을 보인 윌리엄 포사이드. 그의 주저하지 않는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자.

굳은 의지

조선의 성자, **윌리엄 포사이드**
(Dr. William Hamilton Forsythe, 1873~1918)

윌리엄 포사이드, 약자를 감싸는 고귀한 손길

윌리엄 포사이드는 1898년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그는 인턴 과정을 마치고 쿠바에서 벌어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 군의관으로 참전하였다. 전역 이후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였고, 고향인 켄터키의 렉싱턴에 병원을 운영하던 중 조선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친구의 권유로 조선행을 결심하였다.

의료 선교사로서 전주에 도착한 포사이드는 마티 잉골드를 이어 예수병원의 2대 병원장이 되어 환자들을 돌보았다. 1905년, 그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잉골드가 함께 진료한 환자 수가 6,000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포사이드는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고아들을 거두며 호남 최초의 고아원 역할을 자처하였다.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던 어느 날, 포사이드는 괴한의 습격을 받은 양반인 이경호를 치료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환자를 치료한 후 시간이 늦어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포사이드 역시 괴한의 습격으로 귀가 잘리고, 두개골이 깨지는 등의 큰 상처를 입어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동료들의 극진한 치료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나, 아직 남아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처를 입은 조선이지만, 포사이드는 치료를 마치고 2년 만에 돌아와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보다 더 진한 발자국을 남겼다.

이보한, 포사이드의 길을 따라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이경호는 포사이드의 정성 어린 치료에 감복하여 교회에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양반의 체면이 걸려 식솔 중 자신을 대신해 교회에 갈 이를 찾는다. 이에 강도 사건에서 본 포사이드의 담대한 성품에 감동한 이경호의 아들 이보한이 나섰다. 며칠 후 이보한은 당당히 교회로 향하였다. 이보한이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는 전주에 금방 퍼져 더 이상 양반이 교회에 가는 것은 품위를 깎는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후 이보한은 전주의 대표적인 전도사가 되었고, 평생 많은 선행과 전도 활동을 펼쳤다.

천형^{天刑}에도 담대히 맞선 나환자들의 아버지

1909년, 포사이드가 광주에 있던 오웬 선교사의 폐렴 치료를 위해 광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신음하는 여인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손발이 짓물러 있었고, 걸친 누더기는 피고름으로 얼룩진, 천형이라 불리는 한센병 환자였다. 당시 한센병 환자는 기피 대상이었음에도 포사이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외투를 입혀 말에 태웠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광주에 도착하였다. 이

미 오웬은 죽고 난 후였지만 슬퍼할 겨를은 없었다. 용기 가마터를 그녀의 임시 거처로 정해 치료에 전념하였고, 이 소문이 퍼져 다른 한센병 환자가 포사이드 곁으로 모여들었다. 포사이드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한 선교사들과 스코틀랜드 한센병 협회 등의 지원으로 한센병 환자 수용소와 치료소를 세웠고, 이는 한국 최초 한센병 전문 병원(광주 나병원)의 초석이 되었다.

키워드로 보는 윌리엄 포사이드

2대



예수병원 2대 병원장

1904년



윌리엄 포사이드가 선교를 위해 한국에 온 해

고아원



불우한 아이들을 거두어 호남 최초의 고아원 역할을 했다.

한센병



포사이드의 헌신으로 한센병 전문병원이 세워졌다.

6,000여명



1905년, 마티 잉골드와 함께 진료한 환자 수

성자



자비와 헌신으로 포사이드는 성자라 불렸다.



66
코로나19 검사, 진단, 치료,
입원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맞서다

예수병원 선별진료소

124년 예수병원의 긍지를 마음속에 품고,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맞서는 이들이 있다. 가장 많이 확진자와 접촉하며, 언제나 위험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의료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수병원 선별진료소를 소개한다.

1 | 2

- 1 ———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선 선별진료소 의료 인력은 24시간 우리 곁을 지킨다.
- 2 ——— 전문가용 진단 키트를 활용해 높은 정확도는 물론, 전라북도 권역 내 가장 빠른 검사 결과 통보를 제공한다.

의료 현장의 고군분투

그야말로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이 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하루는 매일이 전쟁과도 같다. 그동안 잘 막아왔던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일 확진자 수는 매일 가파르게 늘어 3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예수병원 선별진료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22년 1월의 경우 예수병원에서는 평균 50여 명의 검사가 이뤄졌지만 설 명절 이후 200~400여 명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수병원 선별진료소는 평일 8명, 휴일 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행정 요원까지 모두가 밤낮없이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거듭하고 있다. 의료진은 선별진료와 신속항원검사 전반에 걸친 업무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개인 코로나19 정규 PCR 검사,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물론 코로나19 관련 진단서, 처방전 발급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뤄지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병원 124년의 전통'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전라북도 지역 내 가장 빠른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원스톱 시스템

예수병원 선별진료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의료진이 있기에 운영이 가능했다.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통해 환자도 좋고, 시민도 좋고, 병원도 좋다. 의심 증상으로 방문한 이들은 검사부터 진단, 처방, 입원까지 병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예수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어느 때고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그러나 예수병원 선별진료소의 최고 장점은 병상 확보에 있다.

현재 먹는 치료제의 경우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고, 파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검증된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심해지면 목숨을 위협받게 된다. 상주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입원 병상에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예수병원은 코로나19 중심 병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 환자의 재택 관리를 진행하며 환자 위험도를 수시로 확인한다. 재택 관리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병상도 확보하고 있어 즉각적인 입원이 가능하다. 덕분에 경증 환자가 위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아내기에 최적화되었다. 덕분에 예상보다 많은 환자가 예수병원을 찾아도 안정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다.

1 | 2

1 ———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의료진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재택에서 증상 악화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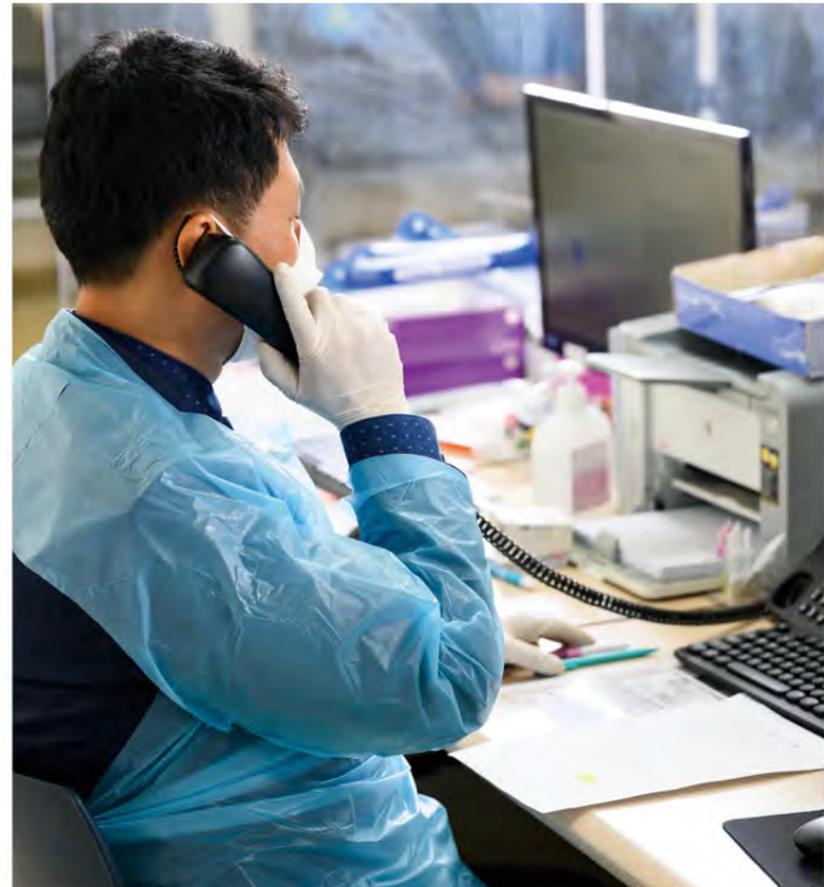
2 ———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진단 키트, 소독약품, 방역수칙 관리 등 방문객의 시선 뒤에도 의료진의 노력은 계속된다.

백의의 천사, 노력과 헌신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고충은 깊다. 당초 50~100명의 검사 대상자를 예상하고 꾸러진 선별진료소의 인력 부족이 가장 크다. 1주일 평균 예상의 4배, 많게는 8배에 이르는 검진자들을 만나다 보면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다.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와 싸우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 '말' 때문이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4시간에 한 번 꼴로 가장 빠른 통보를 진행하지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일부 이용객에게는 더없이 더딘 시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결과가 늦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 또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병원 건물 바깥쪽에 위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방문자들에게는 불편 사항으로 꼽힌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인 셈이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시민과 환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백의의 천사와도 같은 의료진은 독자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의 정점이 지나면 백신 접종과 자연 항체의 형성으로 엔데믹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올해 종식을 기대한다는 것. 그로 인해 다시 활기찬 지역사회의 모습을 꿈꿔본다는 것.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본다.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예수병원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시간대별 안내
09:00~17:00 → 선별진료소
(암센터 지하 1층 남문 옆)
17:00~익일 09:00 → 응급의료센터
(암센터 1층)
점심시간 13:00~14:00,
저녁 시간 17:00~18:00 제외

검사 방법별 대상자 안내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자

-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2 의심 증상이 있는 분(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진 환자가 받은 문자 / 검사 대상자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확진 환자와 검사 대상자의 거주지가 같음을 확인)
- 4 신속항원 혹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는 의사의 소견서나 항원검사 제품의 양성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1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검사 희망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입니다.
- 2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선별진료소 | 063. 230. 8940~1
응급의료센터 | 063. 230. 8282



당신이 뜨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공신장실 배소은 간호사

뜨개질은 첫 코부터 마지막 코까지 통째로 이야기가 되는 일입니다.
바늘과 실을 쥐고 시간을 뛰으면 뜨개실에 온전히 내 두 손의 온기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촘촘하게 엮은 이야기를, 마음의 온기를 전해봅니다.



Knitting Tip — 뜨개실을 고르는 방법

뜨개실은 촉감과 색감도 중요하지만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 알맞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해요. 스웨터같이 살에 닿는 것들은 모직과 앙고라 등의 직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가방은 내구성이 중요하므로 늘어지지 않는 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비싼 용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신의 손에 맞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과 바늘을 구매해 본인이 뜨개질의 성향과 맞는지 파악한 후 다양한 바늘과 뜨개실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코바늘로 희망의 꽃을 뜨다

2020년, 불현듯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곧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견뎌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맞이한 크리스마스, 집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어릴 때 엄마가 뜨개질해서 입혀주셨던 옷이 생각났어요. 곧장 코바늘을 구매해 유튜브를 보며 만들기 시작해 꽃 모양 수세미를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 하는 거라 어려웠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한 코 한 코 전진해 갔습니다. 첫 작품을 들여다보니, 마치 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소중한 기분마저 받아줬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무료함에 힘들어하는 분께 뜨개질을 권하고 싶어요. 부지런히 손을 놀린 후 얻는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뜨개질의 색을 눈에 담은 재미, 보송하고 포근한 실의 촉감을 손에 담은 재미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뜨개 트리를 크리스마스에 입히다

처음 꽃 모양 수세미를 만들고 난 후 하나하나 더 만들다 보니 어느새 20여 개의 수세미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든 수세미를 함께 근무하는 인공신장실 식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누어 주었고 뜻밖의 선물에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작년 12월에도 동료들에게 예쁜 작품을 만들어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직접 만든 뜨개 트리로 인공신장실을 꾸며서 동료 직원은 물론 투석환자들도 뜨개 트리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병원 근무가 끝나면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며 바늘과 실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꼬임 없이 손을 따라오는 실처럼 예수병원 동료 직원들도, 예수병원을 찾아와 주는 환자분들도 하고픈 모든 일을 순탄하게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이른 봄을
깨우듯
무른 잠을
깨우는

봄의 전령, 두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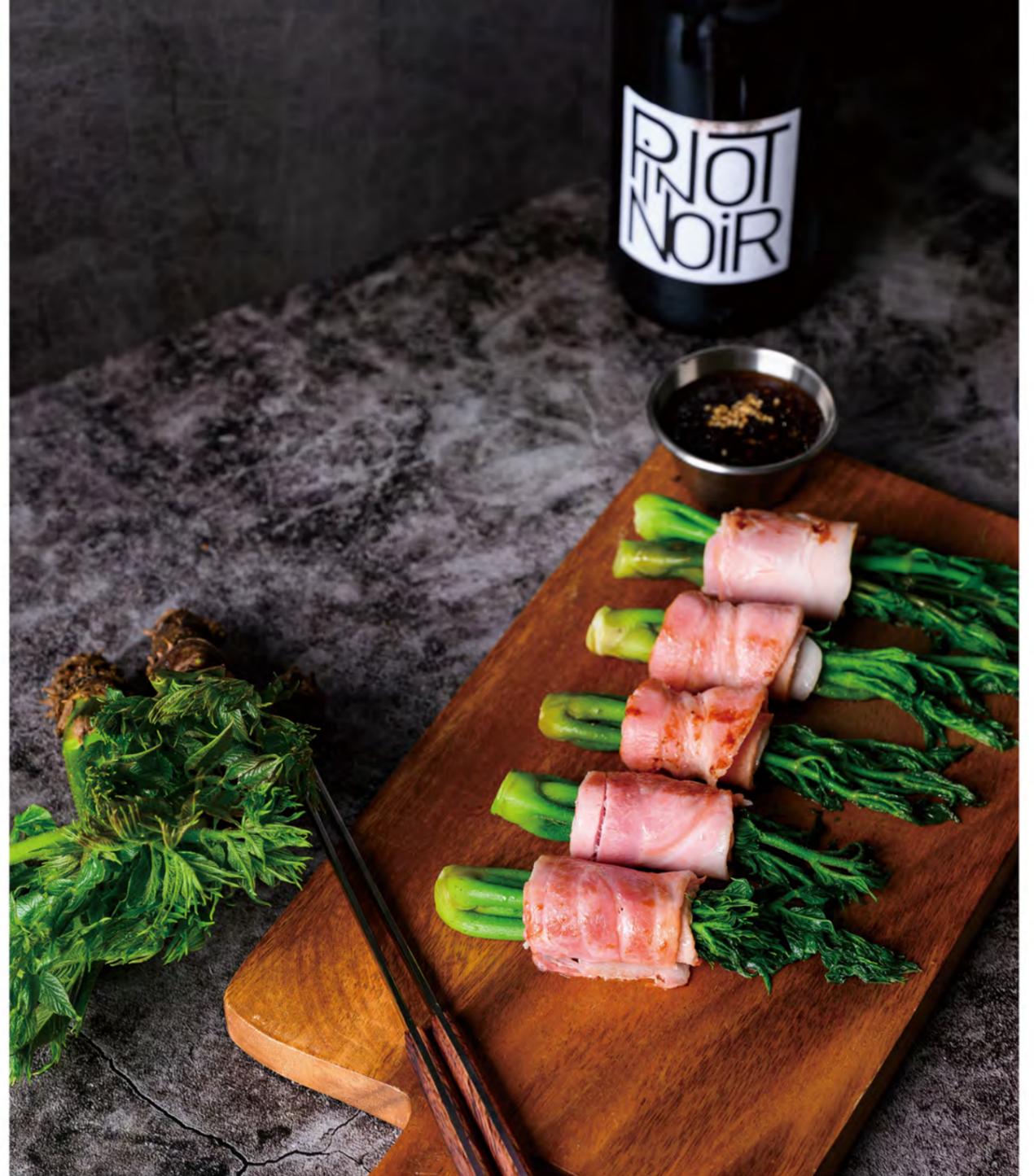


※ 지문 : 예수병원 가정의학과 이진희 과장

봄이 오면, 잠이 오는 '춘곤증'도 같이 옵니다. 춘곤증은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서 따뜻한 봄 날씨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중추신경에 미치는 자극 변화로 생기는 피로 현상입니다. 봄이 되면 인체 활동량이 늘어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는데 겨우내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영양상의 불균형이 춘곤증으로 나타납니다.

춘곤증을 깨우는 데는 봄나물, 그중에서도 언 땅의 봄을 깨운 듯한 파릇파릇한 색의 두릅이 효과가 좋습니다. 독특한 향기와 아

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 두릅은 춘곤증을 깨워주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또한, 두릅의 단백질, 칼슘, 섬유질, 사포닌 등은 혈당을 낮춰주어 당뇨병과 신장병, 위장병에도 좋습니다. 두릅은 살짝 데친 후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양념에 무쳐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굵거나 튀기는 등의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차 적응처럼 따뜻해진 봄 날씨에 계절 적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봄날의 활기를 일깨워 줄 두릅으로 차린 음식, 한 것가락 함께 하시겠어요?



봄 내음 가득 두릅 두릅 베이컨 말이

INGREDIENTS

두릅 5개, 베이컨 5개, 식용유 1T, 소금 1/2T, 오리엔탈 소스

RECIPE

- 1 두릅의 밑동을 자르고, 걸쭉질과 가시들을 제거해 손질합니다.
- 2 끓는 물에 소금(1/2T)을 넣고 두릅을 2분 정도 데칩니다.
- 3 데친 두릅을 물에 헹구어 식히고 물기를 뺍니다.
- 4 베이컨으로 두릅을 말아 줍니다.
- 5 예열된 프라이팬에 식용유(1T)를 두르고 구워 줍니다.
- 6 오리엔탈 소스 또는 취향에 맞는 소스와 곁들여 먹습니다.

같은 감동, 같은 추억을 더하다

일요일 아침, 모두를 새 나라의 어린이로 만들었던 TV 프로그램 <디즈니 만화동산>은 미처 눈곱도 떼지 못한 두 눈 가득 동심을 채워줬었다.

TV 프로그램에서 비디오테이프, 극장을 거쳐 OTT 서비스까지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기억 속 한편에서 슬쩍 꺼내 본다.

©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Hakuna Matata

라이언 킹

주제가 'Circle of life'가 울려 퍼지는 광활한 초원 '프라이드 랜드'. 수많은 동물 앞에서 동물들의 왕인 '무파사'와 그의 아들 '심바'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은 디즈니 영화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오프닝이다. <라이언 킹>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최초의 순수 각본 애니메이션으로 <웬릿>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왕의 후계자인 심바와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은 삼촌 '스카' 사이의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심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라이언 킹>은 2D 애니메이션 극장 개봉작 중 최대 흥행 수익을 거뒀으며, 전 세계 5,500만 장의 비디오 판매량을 기록해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로 남아있다. 이러한 성과는 <라이언 킹 2>, <라이언 킹 1과 1/2>과 같은 후속작 제작으로 이어졌으며, 2019년

에는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되었다. 실사 영화에서는 CGI 기법을 사용한 압도적인 비주얼로 디즈니의 기술 발전을 알렸다. <라이언 킹>에 사용된 음악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Be Prepare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등 많은 OST가 사랑받아 아카데미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석권하였다. 이에 힘입어 <라이언 킹>은 뮤지컬로도 제작되었다. 뮤지컬은 100개 도시 약 1억 명 관람이라는 유례없는 흥행을 기록했으며, 올해 3~4월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라는 뜻으로 방황하던 어린 심바를 치유해 준 주문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한 <라이언 킹>이 건네는 인사로 오늘의 근심을 모두 떨쳐내 보자. Hakuna Matata~

You've got a friend in me

토이 스토리

잠든 사이 장난감이 움직여 나도 모르는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하던 때가 있었다. <토이 스토리>는 이 같은 상상에 응답한 영화였다. <토이 스토리>는 아이들이 잠을 비운 사이 움직이는 장난감 세계를 배경으로 카우보이 '우디'와 우주 전사 '버즈'를 필두로 벌어지는 모험담이다. <토이 스토리>는 장난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는 캐릭터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던 타인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던 우주 전사 버즈가 실은 공장에서 생산된 수만 개의 장난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인이 더는 찾지 않는 장난감이 되었을 때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되물게 한다.

대학생이 된 장난감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끝났던 <토이 스토리 3> 이후 9년 뒤,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토이 스토리 4>가 개봉하였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다룬 <토이 스토리 4>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버린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두 눈 가득 동심을 채워주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올해 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토이 스토리>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버즈의 탄생과 모험기를 담은 <버즈 라이트이어>가 6월 개봉 소식을 전했다. 무한한 우주의 세계로 이끌 <버즈 라이트이어>는 디즈니와 픽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페이스 액션 어드벤처 영화이다. 올 여름 다시 돌아올 장난감들의 이야기로 관객들은 <토이 스토리>와 함께할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되는 신입 사원

첫 출근을 할 당시를 회상하니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잘할 수 있을까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예수병원의 주역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가 있다.
성장할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66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

환자들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원무과 **송승현**

...

안녕하세요. 외래, 접수, 수납을 담당하는 원무과의 신입 직원 송승현입니다. 2년 전쯤 아버지께서 예수병원에서 수술받으신 적이 있어요. 당시 병원 직원분들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예수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환자분들께 적절한 정보를 드리고, 본인 일처럼 생각하며 나서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출근 때에는 막연하게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었는데, 지금은 선배님들의 멋진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무과는 환자분들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기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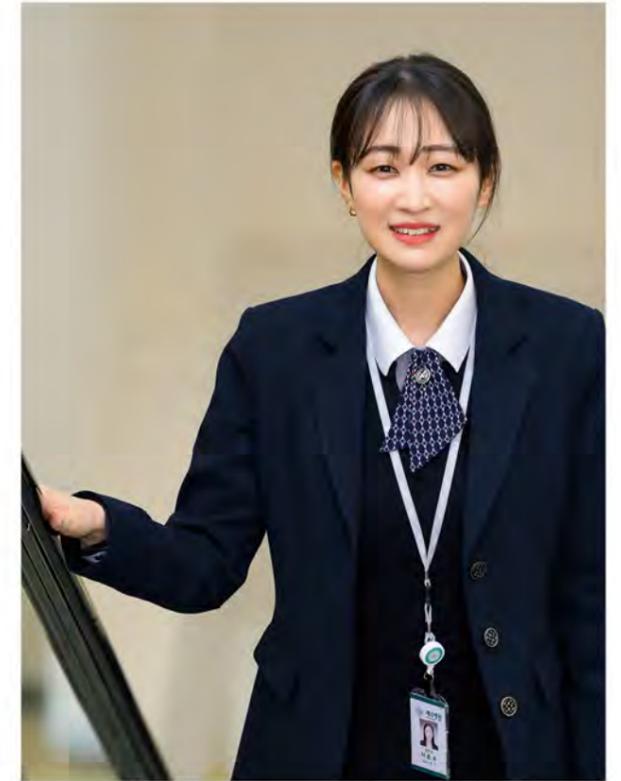


66
예수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99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푸는
원무과 **석은유**

...

안녕하세요. 원무과 석은유라고 합니다. 외래, 접수, 수납, 진료 예약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 예수병원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꿈꾸던 곳에 출근하게 됐으니 잘해야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있어요. 아직 배우는 중이라 서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질문이나 도움 요청에 선배님들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시는데, 손 내밀면 잡아주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고, 안심도 됩니다. 예수병원에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똑같이 전하고 싶어요. 우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똑같이 베푸는 게 목표입니다.



66
핵심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재활의학과 **정민수**

...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정민수입니다. 다양한 물리요법과 재활 운동으로 환자분들의 올바른 자세와 기능적 움직임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처음 출근했을 때부터 직원분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환자분들을 대하실 때는 물론이고, 제 실수에도 다그치지 않으시고, 웃는 모습으로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치료사가 되어 핵심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MC



01 예수병원 제1회 간호사 인턴십 과정 수료식 성료

간호 의료 수료생 33명의 제1회 예수병원 간호사 인턴십 과정 수료식을 마쳤다. 정선봉 원목실장의 지도와 함선희 간호국장의 인사말, 김철승 병원장의 축사와 수료증 수여로 진행되었다. 임상 현장 체험을 통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예수병원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수병원 간호사 인턴십 과정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희망하는 간호대위 실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검사에 관한 교육과 정맥주사, 응급 환자 간호, 시술 부서 체험, 모교 선배와의 만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02 김철승 예수병원장, 이민자 지원 공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김철승 예수병원장이 국내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선진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내 국제진료소를 마련한 뒤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 공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의 의지 및 헌신적 봉사를 중점 부각한 뒤 이를 국가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왔다는 점을 인정해 표창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은 설립 취지부터 인도주의적 박애 정신과 사회통합 차원의 전 인류애적 희생정신을



내포하며, 이 같은 고귀한 정신의 실천을 위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철승 병원장은 이어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전 인류적 가치

에 중점을 두고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약을 늘려나가는 등 사회통합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시대적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03 류제영 순환기내과장의 기획 기사, 전북도민일보에 게재

순환기내과 류제영 과장의 기획 기사가 2022년 1월 12일 자 전북도민일보 16면에 게재되었다. 류제영 과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특히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과 원인을 설명하며, 치료 및 예방법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며 일어나는 급격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동맥경화가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치료법과 예방법,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등을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제영 과장은 예수병원에서 2002년부터 순환기내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협심증과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등을 치료하고 관상동맥중재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기온 '뚝' 떨어지면...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가슴통증

겨울철에는 특히 순환기내과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혈관계에 있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치료법과 예방법,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등을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위	사망 원인	비율 (%)
1위	심장질환	23.1
2위	뇌혈관질환	15.2
3위	폐렴	10.5
4위	암	9.8
5위	뇌졸중	8.7
6위	간질환	7.9
7위	신장질환	7.2
8위	위암	6.5
9위	간암	5.8
10위	췌장암	5.1

급격한 혈관수축으로 심장에 산소·영양공급 줄어 발병 국내 사망 원인 2위... 별다른 증상없이 '잠복의 살인자' 예방위해선 급원제 일주일 3회~30분 이상 운동해야

겨울철에는 특히 순환기내과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혈관계에 있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치료법과 예방법,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등을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예수병원 직장어린이집, 전주시 열린어린이집 선정

예수병원 직장어린이집이 공간 개방성을 활용한 보육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전주시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었다.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영유아보육법과 보육 사업 안내 등 운영 지침을 이행하며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김과 부모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어 교육의 현장에서 함께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장점이 있다. 예수병원 직장어린이집 김연화 원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연화 원장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하여 기획한 작은 정성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다."며 "열린어린이집 선정으



로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 예수병원이 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아이들과 부모의 참여로 '행복을 전하는 나눔 마켓'을 준비해 모든 수익금을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주변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NEWS



05 국제기드온협회 전주캠프, 전주 예수병원에 성경책 1,100권 기증

국제기드온협회 전주캠프(최광식 회장) 임원들이 지난 1월 20일 예수병원을 방문해 성경책 1,100권을 기증했다. 국제기드온협회 전주캠프는 성경책 배포를 통해 지구촌 모든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작년 4월에 이어 예수병원 환우와 직원들을 위해 성경책 기증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제기드온협회는 지난 123년 동안 성경의 전 세계적인 출판과 보급을 지향하는 국제 개신교 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기드온협회에서는 전 세계 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 무료로 성경을 배포하고 있다.

07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원스톱 진단검사 실시

예수병원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시기에 선제적 대응 단계 전환과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검출이 50%를 넘어섰고 전라북도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1.31.~02.06.) 974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급증세에 따른 예수병원의 선제적 대응조치이다. 예수병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전라북도 지역의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맞춰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스톱 코로나 검사 실시, 방역지침 점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관리, 재택치료자 처방 및 담당자 배정,



민생 안정 지원 등 분야에 따른 대응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PCR)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유증상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감염취약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등은 선제검사로 분류되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행하며 위 우선순위 분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진행한다.

06 2021년도 동계 서브 인턴 수료식 성료

2021년도 동계 서브 인턴에 21개 의대 출신 교생 총 80명이 지원하여 5주간의 과정을 마쳤다. 이번 동계 서브 인턴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해외 및 유행 지역 방문 이력을 확인 후 모집하였고,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했다. 본과 2~4학년 의대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예수병원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수련지원팀에서 기획하여 예수병원 임상과장들의 다양한 강의와 함께 5주간의 과정을 마쳤다.



08 삼성 SDS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체결

예수병원이 병원 정보 시스템 선두 기업인 삼성 SDS와 차세대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사용자 중심 UI를 반영하고, 전산 시스템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처방 전달 시스템(OCS)과 전자 의

무 기록 시스템, 일반 행정 시스템, 전자 문서 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의료 정보를 전자 의무 기록과 연동하여 진료 효율성과 기록 정확성을 높이며, 기존의 OCS·의학 영상 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환자 기록과 자료 또한 표준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진료 빅데이터 활용에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09 코로나19 확진 산모, 예수병원 음압수술실서 새 생명 탄생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30대 산모 이씨가 예수병원의 음압수술실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여아를 무사히 출산했다. 분만 예정일을 며칠 남기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씨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출산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다. 유례없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고, 더욱이 출산을 앞둔 산모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은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예수병원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간호국, 감염관리실 등 관련 부서가 하나의 팀으로 협업을 하여 산모와 산아 모두 건



강할 수가 있다. 출산 후 이씨는 음압 격리 병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산아는 별도의 격리실에서 의료진에게 관리 받고 있다. 여성의학센터 홍상기 과장은 "의료진 모두

음압수술실에서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 않았으나 감염관리실 등 코로나로 인한 수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타 부서 간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기부와 후원으로 희망이 다가옵니다

기부와 후원이 우리 이웃과 지역 공동체에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병원이 펼쳐온 사회공헌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자세한 기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6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99
금성교회의 고영환 담임목사가 예수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재)예수병원 유지재단의 총무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고영환 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예수병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금성교회 고영환 담임목사 발전 기금 1,000만 원

66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예수병원에 감사합니다.

99
(주)대성전력 권광식 대표이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수병원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권광식 대표이사는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에 설립되어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예수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후원했다. 이 후원금이 예수병원의 의료 선교와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대성전력 권광식 대표이사 발전 기금 500만 원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병원을 위해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어려분들이 있어 예수병원이 내일을 꿈꿉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돼요.



진료 환경 개선
진찰실, 병실 등
리모델링



교육 환경 개선
세미나실,
최신 교육 기자재 도입



연구 기금
기독의학연구원 연구비,
각종 암과 난치성 질환 연구



불우 환자 지원
저소득층 진료,
외국인 노동자 진료 등



예수병원 박물관 운영비
세미나실,
최신 교육 기자재 도입



기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국민건강
및 복리에 기여, 의료 선교 등

생일 감사의 후원 어떨까요?

1965년 미국 남장로교회 부인회가 생일감사 헌금을 예수병원에 헌납하여 당시 '용머리 고개의 기적'이라 불린 호남 최대의 예수병원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병원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1년에 한 번 자신의 생일에 예수병원 '생일감사 후원'으로 기쁜 날에 의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일감사 후원 계좌번호 <신협 131-003-861449,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예수병원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재정부 공익성기부금단체지정 2007.9.28.)

후원 참여는 이렇게 해주세요.

후원 형태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 예금주 :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10-23-0317364 농협 658-01-031404
국민은행 751901-01-465000 신협 07063-12-004188
기업은행 304-020172-01-309 기업은행 304-020172-01-309(주차동 모금 계좌)

후원 방법에 관해 본원 발전 기금 담당(063-230-8028)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예수병원 진료 일정 안내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종환	노인의학, 성인병, 암검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검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화, 수
	이재성	성인병, 암검진, 건강검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금
	최미원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월 - 금	월 - 금
	김호철	치과, 건강검진	월 - 금	월 - 금
	오종은	건강검진	월 - 금	월 - 금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김지혜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 질환, 골다공증, 부신 질환, 내분비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백소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수, 목	월, 화, 금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수, 목, 금
류타이스내과 230-1300	홍영주	관절염, 통풍, 쿠파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수, 금
소화기내과 230-1300	조진용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
	김지용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화, 수, 금	-
	장금모	간, 위장관질환	월, 수	목
	양만아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화, 금	-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화	월,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수	금
	양성열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금	화
	허대혁	간, 위장관, 담도, hepatobiliary	-	월
순환기내과 230-1350	류재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색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전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색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목, 금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수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금	화, 목
	김다혜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월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수	-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심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극도자절제술	수, 금	수, 금
	신장내과 230-1300	이광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수, 목
선인오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이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수, 목, 금
오주환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화	월, 화, 금
혈액종양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 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230-1360	곽진영	폐렴 및 폐종양, 폐결핵,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수	
	이종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이민희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핵, 특수 기구내시경	화, 수, 금	화	
	양원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금	수, 금	
	권영은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목	목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오지윤	부위마취, 정맥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마취통증의학과 230-1580	허현주	부위마취, 신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정종달	노인마취, 정맥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방사선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화, 목
		박혜리	유방암, 자궁암, 임파종	월, 화, 금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 - 금	월 - 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 - 금	월 - 금	
	유실봉	패병리	월 - 금	월 - 금	
비뇨의학과 230-1440	안지현	소화기병리, 혈액종양병리	월 - 금	월 - 금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소아청소년과 230-1390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박강서	소아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알레르기검사	월, 화, 금	화, 목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월, 목	수, 금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수, 목	월, 수, 목, 금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월	
	박상호	신생아, 신장, 내분비질환	화, 목	화, 수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영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김동구	안면거상, 브리성형, 눈 - 코 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허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신현준	아지럼증, 다발성경화증, 신경면역질환	화, 수	수, 목, 금	
	장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아지럼증	월, 화, 수, 금	목, 금	
신경외과 230-1420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수, 금	수, 금	
	김효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수	월, 수	
	신우림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화, 목	화, 목	
	박민	뇌혈관질환, 뇌졸중, 외상, 혈관 내 수술	화, 금	화, 금	
안과 230-1450	노시현	뇌혈관수술, 뇌종양, 뇌졸중, 외상, 기타뇌질환	목	목	
	고명규	녹내장, 망막, 각막, 사시	월, 목, 금	월, 화	
	정새롬	망막, 백내장,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목	
	김근영	성형안과, 백내장, 녹내장	월, 화	수, 금	

대표전화 1899-1843 / 230-8114 /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 일정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아성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월, 수, 금
	김경아	고위험산과,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과,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수, 금	화, 금
	문정범	난임, 시험관아기수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정태민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목	화, 목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 - 금	월 - 금
영상의학과 230-8380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 - 금	월 - 금
	이미숙	흉부	월 - 금	월 - 금
	송인실	근골격, 척추	월 - 금	월 - 금
	김윤환	인타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 - 금	월 - 금
	김상현	복부, 비뇨생식기	월 - 금	월 - 금
	정수연	흉부, 심혈관계	월 - 금	월 - 금
	노경희	유방	월 - 금	월 - 금
	오지수	근골격	월 - 금	월 - 금
	김은영	외과응급	-	-
일반외과 230-1400	김초희	유방 - 갑상선	-	수, 목, 금
	문재영	소장질환, 대장항문질환, 대장암	목	목, 금
간담체외과 230-1400	김우영	간, 담도, 췌장, 담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김주성	장기이식(간), 간, 담도, 췌장	목	월, 목
대장항문외과 230-1400	이유니	간, 담도, 췌장, 담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월, 수	월, 수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담장	월, 목	월, 목
상부위장관외과 230-1400	정진용	대장암, 항문질환, 담장, 소화외과, 일반외과	화, 수, 금	화
	이종영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유방·갑상선외과 230-1400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김철승	유방 - 갑상선	화, 금	화
혈관이식외과 230-1400	박영삼	유방 - 갑상선, 두경부	월, 수	월, 금
	김예정	유방 - 갑상선, 일반외과	목	월, 수, 목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 혈관중재시술, 혈관 - 이식	화, 금	화
소이외과 230-1400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 혈관중재시술, 혈관 - 이식, 유방 - 갑상선	화, 수	금
	김미진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 혈관중재시술, 혈관 - 이식, 유방 - 갑상선	월, 목	화
응급의학과 230-8280	김에정	소이외과	목	월, 수, 목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원화외과(호스피스)	화	목
	조정열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동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김수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김호진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상진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찬희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노윤재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박홍민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월, 화, 금	화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수, 목	월, 수, 금
재활의학과 230-1460	윤용순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절증후군, 족부클리닉	화, 금	월, 목
	문석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수
	최종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월, 화, 목	수, 목, 금
	유기배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월, 수, 금	화, 수, 금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월, 목	월, 화, 목, 금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화, 수, 목	화, 목, 금
	최말레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화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월, 화, 목	월, 화, 수
정형외과 230-1430	나의현	중독, 정신장애, 청소년정신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사회공포증), 기분장애(우울), 불면증	화, 목	월, 화, 목
	김철웅	조현병, 조기정신병, 수면장애, 기립성뇌장애, 기분장애	월, 수, 목	월, 화, 수
	한영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립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정의식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월, 수	-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신승식	견 - 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월, 목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박신승	견 - 주관절(어깨, 팔꿈치, 관절)	수, 금	화, 수, 금
	김민우	척추 및 하지외상	-	수, 금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진단검사	월 - 금	월 - 금
	최민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화학검사, 진단면역	월 - 금	월 - 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요검, 검사정보학	월 - 금	월 - 금
치과 230-1540	송윤관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신경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신경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신경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중양	화, 목, 금	-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수	월 - 금
혈액학과 230-8780	이아진	일반 피부질환(알레르기, 건선, 여드름), 피부 미용(Fravel, CO2, Nd yag, Toning laser)	월, 수, 목	-
	김민우	근골격계의학, 중앙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 - 금	월 - 금
심장혈관외과 230-1410	문은하	근골격계의학, 중앙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 - 금	월 - 금
	최종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전성 심장병	화, 금	-
흉부외과 230-1400	서연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월, 수, 금	월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 230. 8114 | www.jesushospital.com

